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 역	화재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30	공동주택	암사시영 APT	서울	9.25	(배합실)과 전조실 사이의 배관 판봉 부를 구획토록하여, 방화벽을 설치하 였으므로 연소방지 효과가 컸음. 석유곤로사용중 과열발화하여 인접한 집기류에 인화	-
31	시 장	대홍상가	서울	10. 1	보일러 연료인 톱밤에서 재처리 부주 의로 발화	약 50 萬원
32	공동주택	삼부 APT	서울	10. 7	창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발견 하여 다른 경비원 1명과 포말 소화기 (6 대)로 초기진화하였음 화재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것이었음.	약 50 萬원

〔註〕 火災發生件數는 防災研究部에 '81. 7. 11부터 '81. 10. 20 까지 接受된 것임.

〔註〕 피해액은 火災調査報告書에 나타난 金額으로 지급보험금과 다를 수도 있음.

2. 世界 主要 火災史

(1) 모스크바의 大火

모스크바大火는 1554, 1736, 1739, 1748, 1753, 1812年 등 연달아 있었으나 일짜가 분명한 것은 1812년 9월 14일의 유명한 나폴레옹 遠征時의 것 뿐이다. 그러나 아마 다른 해의 大火는 대부분 6월경일 것이다. 그 이유는 레닌그라드의 大火나 또 北端의 아르한게르스크市的 것도 6월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6월은 년중 습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다. 이나라의 관계 습도에 대한 장기간의 기록은 없으나 6월은 그 前後月인 5, 7월 보다 雨量이 적으며 그 위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관계습도는 6월이 최저로 되어 있다.

1812년의 大火는 佛軍이 모스크바에 入城한 다음날 밤에 일어났다. 이것은 흔히 전해져 내려오는 말과 같이 佛軍을 困境에 몰아 넣기 위한 放火는 아니고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失火였다. 이 화재가 확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습도가 낮았기 때문이겠다. 이 화재는 5일째에 진화되어 全市의 90%를 全燒하였다.

(2) 美國 시카고 大火

1871년 10월 8일밤 불이 西區의 목조 마굿간에서 일어났다. 그 해 여름에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였었고 그 날은 또 바람이 세었으며 더욱이 風向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 무서웠다. 불은 강을 건너 南區로, 위에는 北區로 옮겨갔다. 北風에서 南風으로 바뀐 것이다. 17,450 동을 소진했으며 250명이 죽고 전시의 戶數의 1/3을 태웠다. 6시간 반만에 불이 2 1/4 마일을 달렸으니 시속 692m가 된다. 굉장한 강풍이라 할 것이다. 남쪽은 화약을 사용해서 9일에 겨우 소화하였으나 북쪽은 수도파괴로 인하여 연소되어 멀지 草原으로 퍼져 나갔다. 10일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자연진화되었으나 그간 72시간 동안 猛炎속에 싸여 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화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화재중 가장 격심했던 것은 1906년 4월 18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의 大震火災였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화재가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 1849년 1월 이후 수차례의 화재 및 震災의 來襲을 겪어 왔었다. 즉

1849년 1월

1849년 12월 24일(大火)

1850년 5월 4일(")

1850년 6월 14일(大火)

1850년 9월 17일(大火)

1850년 11월 31일

1850년 12월 14일(大火)

1851년 5월 4일(")

1851년 6월 22일

이 후에 발생한 것이 즉 1906년의 震火災로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을 계속 연소했던 것이다. 미국 地理年報에 게재된 리차드 판프레이氏의 보고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화재에서는 그 高熱狀態가 놀랄만큼 격심해서 유리창의 鑄鐵錘 및 유리 등은 모조리 용해되고 주철기둥의 파편은 고열때문에 둥그렇게 변형되어 버렸으며 못들은 서로 녹아 합쳐지는 등 각처에 있어서 수분간 지속된 최고온도는 섭씨 1090~1200도까지 올랐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볼 때 그 상황은 마치 일본 동경의 화재를 방불케 한 바가 있다.

거기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는 소실건물의 대부분이 과거에 있어서는 灣入, 沼池 또는 凹地 등을 매립한 지역이어서 지진과 동시에 건물은 도괴되고 매설된 가스관은 파열되어 그 결과 32개소로부터의 出火가 일제히 화염을 발했기 때문에 600명의 소방원과 38대의 증기펌프를 갖추고 있었으나 지진과 동시에 수도의 철관이 파괴되어 급수가 한때 不可能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화재는 4월 18일 오전 5시로부터 21일까지 4일간을 계속해서 연소, 21일 오후에 이르러서야 바람의 쇠퇴와 수도관이 수리되어 폭 20야드의 Van Ness Avenue를 경계로 겨우 진화시킬 수가 있었으나 소실가옥 25,000호, 손실면적 368만평, 손해총액(당시 화폐) 7억 5천만불로서 그 손해와 손실면적은 실로 고금에 그 類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화재보험회사의 填補額만 하더라도

1억 5천만불을 돌파했고 그중에는 支拂不能의 형편에 빠진 회사도 있어 지진약관의 제정 등 여러 가지 착잡한 문제들을 남겼다. 일본의 동경 大震災時 世論을 야기 분문케 했던 地震約款論은 실은 本火災에 연유한 것이고 캘리포니아대학교수 A. W. 휘트니氏와 같이 「令後の 保險史는 샌프란시스코震災 이전과 이후의 두 시대로 구획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하여 現在에 있어서의 샌프란시스코의 偉觀은 이 震災 이후에 건설, 부흥된 것이고, 當市가 保有하고 있는 高壓防火水施設은 실로 그 부흥 사업의 일환으로서 1909년 공사에 착수해서 1913년에 준공한 것인데 공사비 약 575만불(당시의 화폐)을 투입 완성케 한 것은 깊이 기념할 만한 것일 것이다.

(4) 日本 東京 大震災

1923년 9월 1일의 일이다. 가을철이라고는 하지만 殘暑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이날의 정오경 즉 오전 11시 58분 갑자기 대지가 진동, 東京都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縣一帶는 그야말로 참상을 극한 일대 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이 지진에 이어 東京都와 橫濱의 양대도시는 대화재를 일으켜 소실되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東京都에 있어서의 화재의 概況을 살펴 보면 出火는 130여개소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飛火도 있었으나 태반은 지진이나 과실이었다.

어째서 이와 같이 많은 出火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당시 일본의 소방본부조사에 의한 발화 원인은 대부분 不明으로 되어 있으나 때마침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불이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던 중 급격한 지진의 내습에 당황하여 그땀처리를 할 사이도 없이 밖으로 뛰어나간 탓이었을 것이다.

소실지구는 麴町, 神田, 日本橋, 京橋, 등 중심변화가는 물론 변방에 까지 무려 15區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 달했던 것이다.

각 지역별로 가장 현저했던 상황만을 추려 살펴 보면 첫째 麴町區에 있어서는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有樂町 一色 인쇄소방향으로부터 出火했다. 이 부근은 목조 大家가 연립해서 화재소방상 특히 경계를 요하는 위험지대이었다. 남풍으로 火焰은 목조삼층건물인 싱거 재봉틀회사물. 태우고 倒潰가옥에 연소, 일단의 猛火를 형성, 경시청 관사를 휩쓸었다. 火急함을 알고 급거 출동한 소방부대는 有樂町 거리의 소화전을 빼고 소화에 전력, 한편 廳內 소화전으로 유실물창고에 연소 하려는 불에 대항했었다. 그러나 火焰은 시시각각으로 경시청을 휩쓸었으나 통신기관 두건때문에 응원소방부대는 도착하지 않았다. 곧 응원소집력에 의해 소집한 소방부대의 噴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염은 더욱 맹렬해지므로 드디어 방판, 는 사태에 이르는 도리밖에 없었다. 한편 北進한 火勢는 시청과 동경역을 위협했으나 有樂町 거리에서 이를 저지하여 마침내 부근 一廓을 死守할 수가 있었다.

帝室 林野管理局은 지진에 잇달아 發火, 남풍 11m의 火勢로 내무성을 태우고 다시 대장성을 半燒했다. 그의 철도성, 문교성, 중앙기상대관사를 태웠으며, 2일 아침에 이르러 겨우 인근에의 연소를 방지했다.

이상 동경의 화재 상황을 몇 구역 현저한 곳만 발췌하여 보았으나 쯤 15區에서의 피해상황은 이 이상 기술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동안에 있어서의 소방대의 활약은 경찰 군대의 활약과 더불어 그들의 수도 東京都의 소화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특기할만 한 것으로되 우리 교포가 당

시 당했던 처참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터이므로 생략한다.

그리고 동경에 인접한 일본 굴지의 주요 무역항인 橫濱市の 참상은 오히려 동경 이상의 것이었다. 무역을 그 存立의 생명으로 하는 橫濱市街의 全城中 더욱이 그중에서도 무역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거류지 즉 山下町과 關内 一圓이 焦土로 화해 버렸음은 실로 치명상이었다. 각 경찰서관내의 피해상황을 보면 加賀町署 관내에서는 당일 정오 외국선박 엠프레스·오브·오스트레 일리어 호 및 2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크레야호가 계류해 있어서 승객 송영객으로 棧橋, 新港 부근은 혼잡을 이루고 있을 때 지진에 따르는 화재에 의하여 탈출구를 잃고 燒死 또는 溺死한 수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또 山下町內의 소위 南京町의 피해는 격심하여 在留中國人 4천名中 약 반수가 燒死했다는 사태도 있었다. 橫濱公園에서도 幾萬名의 피난민이 집결하였던 바 사방으로부터 화염에 포위되어 燃燒熱과 水道鐵管의 파열로 인한 물 때문에 물과 불의 협공을 받은 결과가 되어 처참했고 山手本町署管內는 同管內의 주요지대, 外人의 居住地山手町을 비롯해서 本牧, 北方, 下野, 千代崎町 方面의 상업지대여서 그 피해도 막대하였다.

伊勢佐木町管內는 시내중 가장 번화가인 중심지역인 관계로 그 혼란은 極에 달했고 따라서 희생자도 많아 12,000 명의 燒死者를 내었다.

壽署管內의 소위 매립지라고 칭하는 지대는 지반이 연약한 관계상 건물의 태반은 第一震에 의하여 도괴되고 다시 火焰에 휩싸여 一木一草에 이르기까지 灰燼되어 버렸다.

그밖에 도처에서 대공장의 도괴와 猛火의 포위로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한 참상이었다.

특히 水上署管內에서는 지진에 의하여 棧橋 부근의 지역은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잇달아 일어난 화염 때문에 익사하는 사람, 소사하는 사람 등 헤아릴 수가 없을만치 많았던 것으로 震災前人口의 3할 8분 이상의 숫자에 달했다.

震火災史上 그 類例가 없는 이 東京大震災로 말미암은 피해상황을 요약하면 東京 燒死者 약 7萬, 橫濱 3萬, 湘南, 房州의 震災地를 합하면 희생자 16萬에 달했다고 하며 손해도 동경만 약 百億萬圓이며 震災地를 전부 합하면 130億의 거액에 달했다.

그리고 소실된 건물 피해는 다음과 같다.

全燒	306,359戶
燒失坪數	10,497,607坪